

2008년 3월 23일 법원직 9급 공채 국어실제문제 분석과 해설

최지평 교수
이그잼고시학원
부산고려고시학원
창원행정고시학원

1. 출제 유형 분석표

영역	하위 단위	출제 유형	문항수	
국어 지식 영역	문법적 지식		4	16%
	규범적 지식	①한글맞춤법(가름, 갈음, 가늌) ②~③표준어(안절부절못하다, 금세) ④어법에 맞는 문장		
언어 사용 영역	국어 어휘	①관용어(눈에 밝히다) ②~③고유어의 의미(달포-운수 좋은 날, 갸냥-독서와 인생) ④유사 속담 찾기(울며 겨자 먹기-독서와 인생)	11	44%
	언어 영역 (화법, 독서, 작문)	①단락의 일관성 ②반어법(운수 좋은 날)		
	실용문 독해	①~③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글의 일관성, 필자의 태도, 문맥적 의미) ④한국 축제의 역사(세부 내용의 사실적 이해) ⑤독서와 인생(문맥적 의미: 윤리성, 실용성)		
문학영역	문학 지식		7	28%
	작품 이해와 감상	①~②광장(서술상의 특징, 소재의 문맥적 의미) ③~④초토의 시(시어의 함축적 의미 2문항) ⑤서시(시의 종합적 이해) ⑥운수 좋은 날(작품의 종합적 이해) ⑦용비어천가 제2장의 감상		
한자 한문		①실용한자 표기(樣相) ②~③상황에 맞는 한자성어(未曾有, 三旬九食)	3	12%
누계			25	

2. 실제문제 해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 - 3】

(가) 오늘날, 우리는 민족 문화의 전통을 연암에게서 찾으려고는 할지언정, 고문파에서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민족 문화의 전통에 관한 ㉠해명(解明)의 열쇠를 제시(提示)하여 주는 것이 아닐까?

전통은 물론 과거로부터 이어 온 것을 말한다. 이 전통은 대체로 그 사회 및 그 사회의 구성원(構成員)인 개인(個人)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전통은 우리의 현실에 작용(作用)하는 경우(境遇)가 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이어 온 것을 ㉡무턱대고 모두 전통이라고 한다면, 인습(因襲)이라는 것과의 구별(區別)이 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습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계승(繼承)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서 이어 온 것을 객관화(客觀化)하고, 이를 비판(批判)하는 입장에 서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 비판을 통해서 현재(現在)의 문화 창조(文化創造)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같이, 전통은 인습과 구별될뿐더러, 또 단순한 유물(遺物)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현재에 있어서의 문화 창조와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는 문화적 전통이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 한편, 우리가 계승(繼承)해야 할 민족 문화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연암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의 인습(因襲)을 타파(打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努力)의 결정(結晶)이었다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사실이다.

(다) 피와 뼈와 살을 조상(祖上)에게서 물려받았을 뿐, 문화(文化)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서양(西洋)에서 받아 들인 것들인 듯싶다. 이러한 현실(現實)을 앞에 놓고서 민족 문화(民族文化)의 전통(傳統)을 찾고 이를 계승(繼承)하자고 한다면, 이것은 편협(偏狹)한 배타주의(排他主義)나 국수주의(國粹主義)로 오인(誤認)되기에 알맞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민족 문화의 전통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보수적(保守的)이라는 ㉢명예를 메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 문제(問題)에 대한 올바른 해답(解答)을 얻기 위해서는,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 또 그것은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라) 요컨대, 우리 민족 문화의 전통은 부단(不斷)한 창조 활동(創造活動) 속에서 이어 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계승(繼承)해야 할 민족 문화의 전통은 형상화(形象化)된 물건(物件)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한편 창조적(創造的) 정신 그 자체(自體)에도 있는 것이다.

(마) 원효는 당시의 유행(流行)인 ㉣서학(西學)을 하지 않았다. 원효의 ‘화엄경소(華嚴經疏)’가 중국(中國) 화엄종(華嚴宗)의 제3조(第三祖) 현수(賢首)가 지은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의 본이 되었다. 원효는 여러 종파(宗派)의 분립(分立)이라는 불교계(佛敎界)의 인습에 항거(抗拒)하고, 여러 종파의 교리(敎理)를 통일(統一)하여 해동종(海東宗)을 열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승려(僧侶)들이 귀족(貴族) 중심의 불교(佛敎)로 만족할 때에, 스스로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배움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傳道)하기를 꺼리지 않은, 민중 불교(民衆佛敎)의 창시자(創始者)였다. 이러한 원효의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귀중한 재산(財産)이 아닐까?

(바)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무시(無視)한다는 것은 지나친 자기 학대(自己虐待)에서 나오는 편견(偏見)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첫머리에서 제기(提起)한 것과 같이, 민

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것이 국수주의(國粹主義)나 배타주의(排他主義)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왕성(旺盛)한 창조적 정신은 선진 문화(先進文化) 섭취(攝取)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새로운 민족 문화의 창조(創造)가 단순히 과거의 묵수(墨守)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단순한 외래 문화(外來文化)의 모방(模倣)도 아닐 것임은 스스로 명백한 일이다. 외래 문화도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뜻이 있는 것이고, 그러함으로써 비로소 민족 문화의 전통을 더욱 빛낼 수가 있는 것이다.

【문 1】 위 글에서 (가)~(마)를 논지 전개에 맞게 바르게 배열한 것은?

- ① (나)-(다)-(가)-(마)-(라)
- ② (다)-(가)-(나)-(마)-(라)
- ③ (나)-(가)-(마)-(다)-(라)
- ④ (다)-(나)-(마)-(가)-(라)

【문 2】 위 글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민족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국수주의나 배타주의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 ② 거의 모든 문화가 서구화된 현실 속에서 전통 문제를 철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 ③ 새로운 민족 문화 창조에 도움이 된다면 외래문화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④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전통을 이어받아야 한다.

【문 3】 위 글에서 밑줄 친 ㉠ ~ ㉣의 의미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시사(示唆)하여 ② ㉡ - 비판 없이
- ③ ㉢ - 구속을 받아야만 ④ ㉣ - 당나라 유학

【문 4】 다음 관용어의 쓰임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귀가 여리다 → 속는 줄도 모르고 남의 말을 그대로 잘 믿는다.
- ② 머리를 맞대다 →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만나 지혜를 모으다.
- ③ 귀가 뚫리다 → 말을 잘 알아듣게 되다.
- ④ 눈에 밝히다 → 지난 일이나 대상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기억에 생생하다.

【문 5】 다음 중 우리말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이번 사업 실패로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었다.
- ②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 ③ 동생이 반 대표로 뽑혀져서 교내 웅변대회에 나가게 되었다.
- ④ 갑작스런 태풍으로 남해안 지방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6 - 7】

— 펼쳐진 부채가 있다.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가을이다. 겨드랑이에 낀 대학신문을 꺼내 들여다본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여자를 깔보지는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닌다.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은 알고 있다. 다음에, 부채의 안쪽 좀더 좁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윤애에게 말하고 있다. 윤애 날 믿어 줘. 알몸으로 날 믿어 줘.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조선인 꼴호즈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놀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하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도어에 뒤통수를 부딪치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안고 뒹굴던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있다.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이 꿈이 다르지 않느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그는 지금, 부채의 사복 자리에 서 있다.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이었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 만 그들의 사랑을.

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준은 처음 알아본다. 부채꼴 사복까지 뒷걸음질 친 그는 지금 핑그르르 뒤로 돌아선다. ㉡제 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문 6】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인공의 회상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고 있다.
- ② 상징적 기법을 통해 인물의 고뇌를 형상화하였다.
- ③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서술하였다.
- ④ 풍자적인 언어 사용이 작품의 비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문 7】 밑줄 친 ㉠, ㉡의 의미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진정한 광장을 찾아 나섰던 주인공의 삶의 과정을 고려해 볼 때, 부채는 ‘주人公의 삶 자체’를 의미한다.

- ② ㉠ - ‘사북 자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곳’을 의미한다.
 ③ ㉡ - 주인공의 적극적 선택의 결과로 얻어진 공간을 의미한다.
 ④ ㉢ - 이념의 대립과 사상의 갈등이 없는 평안한 휴식처를 의미한다.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8 - 9】

㉠판잣집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 있다.

내려쪼이던 햇살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문 8】 위 시에서 희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소재는?

- ① ㉠
 ② ㉡
 ③ ㉢
 ④ ㉣

【문 9】 ㉤에서 암시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당한 것은?

- ① 절망적 현실을 밝게 보려는 시각
 ② 가난에 대한 두려움
 ③ 현장감을 강조하는 행위
 ④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절규

【문10】 다음 ㉠ ~ ㉤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누가 이번 경기에서 우승할 것인지 (㉠)하기 어렵다.
- 간단한 인사로 환영의 말을 (㉡)합니다.
- 이 정도의 인원이 식사를 할 경우 (㉢)을 잘해야 낭비를 줄일 수 있다.
- 성공과 실패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했느냐로 (㉣)이 난다.

- ① 가늠-갈음-가늠-가름
- ② 가늠-가늠-갈음-가름
- ③ 가름-갈음-가늠-가름
- ④ 가름-가늠-가늠-갈음

【문11】 다음의 밑줄 친 표현들 가운데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무슨 이유인지 그는 안절부절하고 서 있었다.
- ② 선두에 서려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라.
- ③ 추운데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해라.
- ④ 막내아들은 아직 학교 가기 전이라 글씨가 괴발개발이다.

【문12】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① 이 시의 시상 전개 과정은 과거-미래-현재 순이다.
- ② ㉠, ㉡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의미는 ‘암울한 시대 상황’이다.
- ③ ㉢은 화자가 추구하는 순수 이상적 가치를 의미한다.
- ④ ㉣은 시련 속에서도 양심을 지키며 사는 순결한 삶을 의미한다.

【문13】 다음 괄호 속의 한자가 틀린 것은?

자본주의 세계 ㉠체제(體制)의 성립과 더불어 지구화는 새로운 면모를 드러낸다. ㉡강력(強力)한 국민국가 체제를 먼저 정립한 서구가 비서구를 식민지화하는 ㉢양상(樣象)이 그것이다. 서구의 식민주의에 대해 비서구는 민족주의로 대항한다. 식민주의와 민족주의가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16세기 자본주의 세계 체제 이후의 지구화를 우리는 2차 지구화라 부를 수 있다. 2차 지구화에서는 국민국가가 주요한 역사적 ㉣행위(行爲)자라 하겠다.

- ① ㉠ ② ㉡ ③ ㉢ ④ ㉣

【문14】 다음을 하나의 문단으로 엮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가) 그러나 만사가 겉으로 보이는 대로만은 아니다.
 (나) 뱀과 인간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다) 분명히 뱀은 배로 기고, 인간은 발로 똑바로 걷는다.
 (라) 정신적으로는 배를 땅에 기는 인간이 있지 않은가?

- ① (가)-(다)-(나)-(라) ② (가)-(라)-(나)-(다)
 ③ (나)-(다)-(가)-(라) ④ (나)-(가)-(다)-(라)

【문15】 다음 글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3세기경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부족의 생활 상태를 기록한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동이전(東夷傳)’과 기타 중국 사적(史籍)의 단편적인 기록들에 의하면, 어느 부족 사회에서나 일년에 한두 차례의 대회를 열고 제천 의식(祭天儀式)을 거행하면서, 부족 의식을 연마하고 가무백희(歌舞百戲)를 연행(演行)하였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나라의 원시적 축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부여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 예의 무천(舞天), 마한의 춘추제(春秋祭) 등을 그 대표적인 고대 제의(祭儀)로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연일 음식 가무(連日飲食歌舞)’ 또는 ‘주야 음주 가무(晝夜飲酒歌舞)’ 하는 축제였으나, 아직 의례(儀禮)에서 분화되지 않은 단계로 보인다.

이러한 제천 의례의 전통은 국가적 행사인 공의(公儀)와, 민간의 마을굿(도당굿, 별신굿, 단오굿, 동제 등)의 두 갈래로 전승되어 오면서 우리 나라 축제의 맥을 이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신라의 대표적인 공의는 팔관회였는데, 진흥왕 12년(551년)에 전사한 사졸들을 위한 위령제로서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를 계승한 고려조의 팔관회는 국가적 행사로 고구려의 동맹과 신라의 팔관회를 통합한 민족적 수호제로서 중동(仲冬)에 행하여졌는데, 상원(上元)의 연등회와 더불어 양대 국가 축전의 행사였다. 천령(天靈)과 오악 명산(五岳名山), 대천(大川), 용신(龍神)등 토속신에 대한 제전인 팔관회나 불사(佛事)의 제전인 연등회에서는 그 대상이 다를 뿐, 양자는 다 같이 소회일(小會日)과 대회일(大會日)이 있어, 궁중의 뜰에 윤등 일좌(輪燈一座)를 놓고, 사방에 향등(香燈)을 밝히고, 높이 5장이나 되는 채봉(綵棚)을 양쪽에 설치하고, 그 앞에서 가무백희를 봉정하고, 더불어 주과(酒果)와 음악으로 대축연을 베풀며, 제불(諸佛)과 천지 신명(天地神明)을 즐겁게 하여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기원하였다. 이 때, 백관이 행례하고, 왕은 위봉루에 출어하여 이를 보았다. 특히, 대회일에는 송의 상인, 여진, 탐라, 일본 등의 외국인도 조하(朝賀)하여 예물과 명마(名馬) 등을 바치는 국제적 행사의 성격을 띠었다.

<정답>

1.②	2.①	3.③	4.④	5.④	6.④	7.③	8.④	9.①	10.①
11.①	12.②	13.③	14.③	15.①	16.②	17.②	18.③	19.①	20.③
21.④	22.③	23.①	24.②	25.②					

<해설>

1. 글의 일관성

일관성이란 단락과 단락의 유기적 관계를 말한다. 주로 접속 부사, 지시어, 핵심어의 연쇄적 관계 등을 토대로 글의 순서를 파악해 본다. 먼저 주어진 글은 자기주장을 하는 논설문이므로, 논설문의 일반적 순서를 염두에 두고 접근해 보자.

논설문의 서론에는 주로 논지가 제시되므로, 전통의 본질과 계승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말한 (다)단락이 가장 먼저 온다. 핵심 논지인 ‘전통의 본질’에 대해 언급한 (가)단락이 뒤에 이어지면 자연스럽다. 또 하나의 논지에 해당하는 ‘전통의 계승’을 이끄는 전환 단락이 (나)단락, 이에 대한 예증에 해당하는 (마)단락, 주지에 해당하는 (라)단락을 순서대로 연결하면 적절하다.

2. 필자의 태도

이 글의 결론에 해당하는 (바)단락에서 필자는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것이 국수주의(國粹主義)나 배타주의(排他主義)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3. 문맥적 의미의 파악

‘보수적(保守的)이라는 ㉠명예를 메어야만’은 문맥적으로 볼 때, ‘비난을 받아야만’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4. 관용어의 쓰임

④ 눈에 밝히다 → 과거에 보았던 대상이 잊히지 않고 자꾸 눈에 떠오른다.

(예) 한 달이나 보고 돌아오셨는데 어머니는 손자의 모습이 눈에 밝힌다고 하셨다.

‘지난 일이나 대상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기억에 생생하다.’는 ‘눈에 어리다’이다.

5. 어법에 맞는 문장

④가 바르게 쓰인 문장이다.

① 이번 사업 실패로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었다. → 풍비박산(風飛雹散)

②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③ 동생이 반 대표로 뽑혀져서 교내 웅변대회에 나가게 되었다. → 뽑혀서(피동의 남용)

6. 소설의 서술상 특징

최인훈의 ‘광장(廣場)’은 1960년 발표 이후 여러 차례 개작을 하였기 때문에 판본에 따라 내용이나 문체상의 차이가 있는 장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분단의 과정과 비극 속에서 고뇌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주제로, 민족의 분단을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선택의 기로(岐路)에서

방향을 인간상을 제시한다. 선택지 ①②③은 이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철학, 사회학 용어를 사용한 관념적인 표현을 한 점도 이 작품의 특징이다. 그러나 ④의 지적과 달리 풍자적인 언어 사용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은 작품의 비극성과 거리가 멀다.

7. 문맥적 의미의 파악

㉠에서 ‘사복’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비유적으로 이룬 말이며, ‘사복 자리에 서 있다.’는 표현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극한적 상황’을 의미한다.

㉡의 ‘푸른 광장’은 직설적으로 바다를 의미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죽음의 세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본 ‘푸른 광장’은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없어 헤매던 곳이 아니라 그러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자기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세계 정도로 보는 것이 알맞다. 이 작품에서 명준의 자살은 어느 누구도 분단의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은 주인공의 적극적 선택의 결과로 얻어진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8. 시어의 함축적 의미

‘초토의 시(구상)’는 한국 전쟁 후 폐허가 된 피란민촌을 배경으로, 전쟁이 빚어낸 비극적 현실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판잣집, ㉡갯더미’ 등은 전쟁의 비극적 참상을, ‘㉢개나리’는 희망적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다.

9. 문맥의 함축성

㉠은 전쟁으로 인한 황폐함과는 대조적인, 소녀의 순진무구함을 나타내는 희망적 표현이다.

10. 유사형 이의어의 구분

- 가늠 : 눈대중, 어림짐작
- 같음 : 교체하다, 대신하다.
- 가름 : 둘로 나뉘.

11. 어법에 맞는 표준어

㉠은 ‘안절부절못하다’가 표준어이다.

‘㉡나아-가다’는 동사로 [-가, -가니] 등으로 활용한다. 앞으로 향하여 가다. 또는 앞을 향하여 가다. ‘㉢나-가다’는 [-가, -가니, -가거라] 등으로 활용하는 동사이다. 일정한 지역이나 공간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다. ‘㉣피발-개발’은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으로, 글씨를 되는데로 아무렇게나 써 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이다.

12. 시의 종합적 이해

윤동주의 ‘서시(序詩)’는 부끄러움 없는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주제로 한 시인의 대표시다. ‘서시(序詩)’는 책의 첫머리에 머리말을 대신해서 신는 시를 말한다. 실제로 너무나도 유명한 이 시는, 윤동주가 연희전문학교 졸업을 1개월 앞두고 자신의 시집에 붙일 서문을 대신하여 쓴 작품이다. 각 행을 의미 기준으로 분석해 보자.

1,2행-화자가 바라는 소망을 말한다.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순결한 삶을 시인은 지향하는 것이다. 하지만 살아가는 일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더구나 윤동주가 살아간 시대의 흑독함을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커다란 소망인가?

3, 4행-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릴 정도의 작은 바람이란, 자신의 양심을 어지럽히는 지극히 사소한 오점(汚點), 지극히 사소한 내적인 유혹을 뜻할 것이다. 곧, 여기에서 ‘바람’은 화자의 심리적 동

요, 갈등을 의미한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만한 이런 것들에도 그는 자책감을 느낀다는 말일 터인데, 이런 순결한 내면이 그 부정(不淨)한 시대를 살아가며 얼마나 큰 고통을 느꼈을지 짐작하게 한다.

5~8행-자책과 괴로움 속에서 시인은 다시 한 번 의지를 다진다. 이 다짐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결연한 의지가 나타난다. 여기서 ‘별’은 윤희동의 다른 많은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상과 소망, 순수함을 상징할 터이며, 이런 마음가짐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는 결의는 그의 시에 그려진 소망이 개인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에 닿아 있는 것임을 드러내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다짐은 낭만적인 관념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는 마지막 행에서 나타나 듯, 시인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여기서 ‘밤’은 일제 강점하의 암울한 현실을, ‘별’은 자신의 소망과 이상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바람’은 현실의 시련과 고난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 시구는 암울한 시대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이상과 소망이 시련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실 인식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우리는 5~8행의 결의가 순진하고 관념적인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냉철하고 결연한 의지의 소산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13. 한자어의 이해

㉔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를 뜻하는 양상은 ‘樣相’으로 쓴다.

14. 단락의 일관성

문제 1번과 동일 유형이다. 먼저 문제를 제기한 (나)문장이 오고, 뱀과 인간의 차이점을 말한 (다)문장이, 이에 대한 반론에 해당하는 (가)문장, 그리고 (가)의 근거를 의문으로 제기한 (라)문장이 이어지면 자연스럽다.

15. 세부 내용의 사실적 이해

지문은 제6차 국어교과서에 실린 ‘한국 축제의 역사(이두현)’ 가운데 머리말과 본문의 앞부분이다. 머리말에 해당하는 둘째 단락까지는 한국 축제의 기원과 그 전승을, 본문에 해당하는 셋째 단락은 신라, 고려의 팔관회와 연등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본문에서 신라의 팔관회를 계승한 고려 팔관회의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 신라 팔관회의 구성을 말한 내용은 없다.

16. 표준어의 이해

㉔ ‘금세’는 부사로, 지금 바로의 뜻이다. ‘금시에’가 줄어든 말로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된다.

㉕ 깎두기, ㉖ ‘다다르다’는 목적한 곳에 이르다는 뜻의 ‘으’ 탈락 동사이다. 주로 ‘다다라, 다다르니’ 등으로 활용한다. ㉗ 문맥으로 ‘꺾데기’가 맞다. 꺾데기는 달걀이나 조개 따위의 껍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 꺾질은 딱딱하지 않은 물체의 껍을 싸고 있는 질긴 물질의 켜를 일컫는다.

17. 한자성어의 이해

㉔ 미증유(未曾有)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음의 뜻이다. ㉕ 고식지계(姑息之計) ㉖ 하석상대(下石上臺) ㉗ 미봉책(彌縫策) 등은 임시방편(臨時方便)의 뜻이다.

18. 작품의 종합적 이해

‘운수 좋은 날(현진건)’은 사실주의 단편소설로, 일제강점기의 도시 빈민층의 생활상을, 가난한 인력 거꾼의 하루 일과 그의 아내의 비극적 죽음을 통해 반어적 기법으로 보여 주고 있다.

19. 표현 의도의 이해(반어법)

제목과 내용의 반어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돈을 많이 벌린 날’이라는 행운의 반복적 상승화와 ‘아내의 죽음’이라는 불행이 동일한 시간에 상호 교차하는 반어적 구조를 통해, 하층민의 비참한 삶을 리얼하게 보여 주는 작품이다.

이러한 반어적 표현은 ①의 ‘살뜰히도’에서 나타난다. 표면적으로는 ‘알뜰히도’의 뜻이지만, 이면적으로 ‘알뜰게도’의 뜻이다.

20. 고유어의 이해

‘달포’는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을 뜻한다.

21. 문맥에 맞는 한자성어

㉔의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은 ‘굶기를 밥 먹듯 한다.’는 뜻으로 몹시 가난한 처지를 말한다. 삼순구식(三旬九食)은 삼십 일 동안 아홉 끼니밖에 먹지 못한다는 뜻으로, 몹시 가난함을 이르는 말이다.

22. 속담의 이해

‘올며 겨자 먹기’란 맵다고 울면서도 겨자를 먹는다는 뜻으로, 싫은 일을 억지로 마지못하여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오늘월 닭이 오죽하여 지붕에 올라갈까’는 낱알이 귀한 여름에 배고픈 닭이 모이를 찾으러 지붕을 허비러 올라간다는 뜻으로, 아쉬운 때에 행여나 하고 무엇을 구함, 또는 싫지만 배를 채우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① 하룻망아지 서울 다녀오듯 → 보기는 보았으나 무엇을 보았는지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3. 문맥적 의미의 파악

(다)단락은 독서의 필요성을 말한 전개 단락이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아니하면 입 속에 가시가 돋친다 [一日不讀書 口中生荊棘].”라는 옛말에서 ‘형극’은 가시란 뜻으로, ‘남을 해칠 마음’의 비유적 표현이다. 이는 옛날의 독서의 목적이 윤리성에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오늘날은 독서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낙오가 됨을 지적하면서, 그 목적이 실용성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4. 고유어의 이해

‘깜냥’은 ‘일을 해낼 만한 능력’을 말한다.

25. 용비어천가의 이해

용비어천가 제2장은, 조선 왕조는 국가의 기본이 튼튼하고 유서가 깊어, 문화의 창달과 왕조의 발전이 무궁할 것임을 요지로 한, 해당 작품의 백미(白眉)이다. 글 전체가 고유어로만 쓰였고, 고도의 상징을 구사하여 함축성과 참신성을 지녀 문학성이 뛰어나다. 형식면에서 대구와 반복의 기법도 드러난다. ②의 내용은 ‘무망장(無忘章)’으로 불리는 결사의 주된 내용이다.